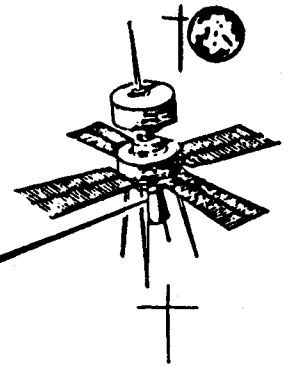


양
계

안테나



김 용 화
(본지편집차장)

육계 복(伏) 경기

육계업을 하는 사람이면 으레 음력 6월 삼복(三伏) 경기를 연중 육계입추의 최대 관심사로 꼽는다.

복(伏)이란 한자를 살펴보면 사람 옆에 개가 엎드려 있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혹서 중의 절후에 더위를 피하고, 몸을 보신하기 위해 개를 잡아 먹는 풍습이 예로부터 전해져 오고 있는데서 유래된것 같다. 복중에 닭고기를 먹는 것은 종교적이거나 또는 개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들이 닭에 풍부한 영양분이 있어 이열치열이란 원리에 입각해 인삼을 넣어 삼계탕을 대신 먹는 풍습이 전래되었다고도 한다.

어쨌든 닭은 한민족의 건강을 지켜온 특별한 의미를 지닌 동물인 것만은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복이 되면 닭고기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가격 또한 연중 최고를 기록해 오지않나 생각할 수 있다.

통계적으로 볼때 매년 복경기때는 실제 35~40%의 병아리 입식이 증가하게 된다. 일부에서는 복경기때는 병아리 입추를 놓고 “못먹어도 고”라고 할 정도로 기대를 걸었던게 사실이었다.

그러나 몇년전부터 복경기의 양상은 조금씩 변화를 보이기 시작하여 “놓으면 깨진다”라고 할 정도로 예측불허의 상황이 되어가고 있다.

지난 '90년도에 7월의 육계가격은 세미가 1,000선 이상을 유지하였으나 '91년 초복인 7월19일에는 750원대를 중복인 29일에는 800원, 말복인 8월8일에는 800원선을 유지하여 두손을 들고 육계업계를 떠난 사람들이 속출하여 대조적이었다.

다시 '92년에 접어들어서는 상·하한 가격의 폭이 현격히 좁혀지고 있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는 사육규모가 커지고, 생산조절이 어느정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이 한판에 운명을 거는 도박성 육계업이 재현되지 못하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

이 든다.

소비축진 없는 생산증가는 결국 같은 동족끼리 싸워 피를 흘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종계수입이 금년 상반기내에 이미 절반을 넘어선 상태이고 육용계 병아리 가격이 부화장에서 내세우는 생산비선 이하에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

북경기에 대비한 입추 직전의 상황이라 많은 육계인들이 금년에도 북경기에 대한 기대가 큰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와 같이 무작정 운명에 맡기는 경영을 해서는 안된다. 이미 사회 전반적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의식소비가 급감해 있고, 기상이변, 태풍, 질병 등의 외적인 측면까지 고려해서 입추 결정을 해야지 작년보다 초복이 일주일 가량 앞당겨진 것만을 믿고 투자를 해서는 안될 것이다.

난가하락

채란업계는 86아시안 게임을 마친 이후 생산이 서서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88년 서울 올림픽이 끝나고 나서부터 농장출하가 격면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여왔다.

그러나 UR협상의 후유증, 공해방지를 위한 환경차원에서의 계분처리에 대한 단속이 엄격해지면서 급격한 구조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즉 시설자동화 면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였다.

수입개방을 맞이하여 생산비를 낮추어야 한다는 기정사실 앞에서 어찌된 영문인지 대란기준 계란생산비가 본회가 비공식적으로 조사한 결과 49원에서 63원대로 약 24

%가 상승하여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소비면에서도 '90년보다 '91년에 6%가 증가한 177개에 그쳐 인구증가에 따른 자연증가 8~9% 수준에 미달되어 결국 소비 감소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간 채란업자들은 난가안정으로 인해 계란출하에 애로를 느끼지 않아 유통이나 소비축진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시설은 현대화되어 사육규모도 대형화 되었으나 출하 방법은 아직도 원시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나마 조합이나 일부 회사에서 상품화시켜 직접 유통에 참여하고 있으나 아직 시장 점유율이 미미한 단계에 있어 계란판매는 상인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이 약간 많아진 요즘 난가는 상인이 정해주는 대로 형성될 수 밖에 없는 암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상품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만 보관성이 약한 1차산업은 특별한 공급조절이 없는한 중간 상인의 개입으로 엄청난 손해를 입는다.

이같은 상황을 계속 반복할 것인가를 채란업자들은 깊이 생각해야 할 시기에 놓여 있다. 판매없는 생산이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미래에 대한 희망도 없다. 이제부터라도 사육규모가 커진 곳부터 직접 계란을 소비처에 연결할 수 있는 유통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유통의 불합리로 인한 손해를 최대한 방지할 수 있고 수급조절도 가능해질 것이다. **양계**